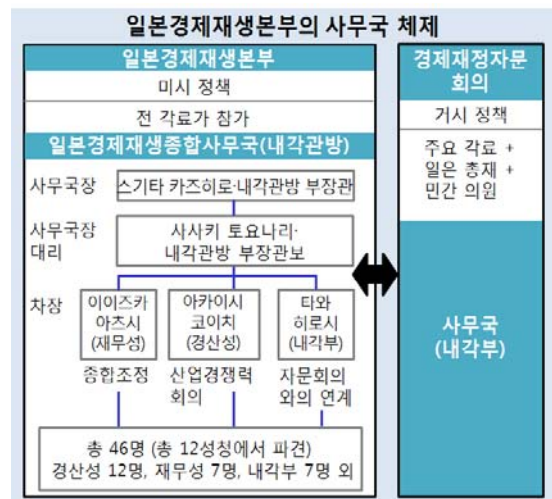


일본경제재생본부 사무국 시동_경산성 주도

- 아베 내각에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일본경제재생본부’ 종합사무국이 7일 출범
 - 사무국은 경산성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민주당 정권에서 냉대를 받았던 경산성이 아베 내각에서 핵심세력으로 등장
 - * 경제재정재생대신(아마리 아키라), 내각부 경제재정담당부대신(니시무라 야스토시) 등이 경산성 출신
 - 경제재생본부는 모든 각료가 참가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업정책은 경산성 출신이 주도하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결정됨
 - 첫 번째 회의는 1월 중에 개최하고, 6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
-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연락회의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재생에 대해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
 - 긴급경제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
 - 산업경쟁력회의 구성은 9명 중 7명이 CEO로 임명되어 풍부한 현장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회의멤버 : 하세가와 야스치카(타케다약품 사장, 경제동우회 회장), 사카네 마사히로(코마츠 회장, 경단련 부회장), 사토 야스히로(미즈호FG 사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도레이 회장), 미키타니 히로시(라쿠텐 사장), 니이나미 타케시(로손 사장), 아키야마 사키에(사키 코포레이션 사장), 타케나카 헤이조(게이오대학 교수), 하시모토 카즈히토(도쿄대학대학원 교수)



출처: 일본경제신문

□ 산업경쟁력회의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일본산업재생플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전개전략’, 전략시장을 창출하는 ‘신 타깃 정책’ 를 중심으로 일본의 성장전략을 논의할 방침

○ 일본경제의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술혁신 등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산업경쟁력회의’와 ‘중합과학기술회의’를 연계도 검토

○ 8일, 경제재생본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1일 각의에서 결정할 긴급경제대책의 골자를 확인

-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민간투자를 환기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방침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국민 펀드의 창설이나 과학기술연구비로 약 5000억 엔을 배정

* 긴급경제대책 관련 경비는 10.3조 엔을 국비로 계상, 사업규모는 약 20조 엔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3.1.7./8/9)